

싱크볼의 올바른 사용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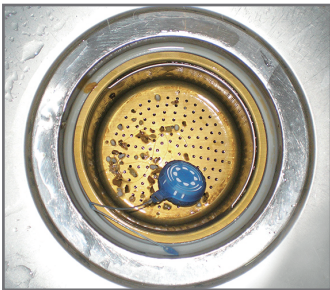
스테인레스는 정말 녹슬지않는 금속인가요?

KS규격의 가정용 싱크볼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은 일반적으로 내식성이 뛰어나지만, **절대로 녹이 슬지 않는 금속은 아닙니다.**

스테인리스강이 잘 녹슬지 않는 것은 함유된 크롬이 산소와 결합하여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고, 이것이 녹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.

탈취제, 세정제에 의한 부식사례 (액상: 산성 및 약산성 제품)

탈취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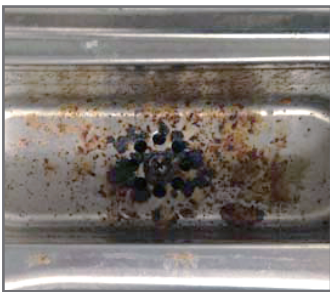
세정제



녹구멍



녹



녹물



얼룩



품질유지 및 사용방법

1. 입주 직후 가정용 중성 세제로 세척후 맑은물로 거품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깨끗이 닦아주세요.
2. **부식된 음식물, 산성세제, 화공약품(염산, 황산, 락스류)** 등이 묻었을 경우 즉시 제거한 뒤 물로 행궈야합니다.
3. **배수구 탈취제(세정제, 분말, 액상)** 사용시 단기간에도 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시 제품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 **절대 사용을 금해주시기 바랍니다.**
4. 부엌에서 사용되는 기구에 의해 흠이나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스테인레스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5. 제품에 부착된 **주의사항**을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가정용 싱크볼의 부식(녹)원인과 대처(제거)방법

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는 녹슬지 않는 금속으로 알려져 있으나, 스테인리스는 철(Fe)에 11%이상의 크롬을 첨가해 표면에 안정적인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여 보호받는 것일 뿐 다른 금속과 마찬가지로 **관리 소홀시 언제든지 녹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**입니다.

중성의 물에서는 거의 부식이 없으나 각종 용액 속에 염화물이온 강산성, 강알칼리가 피막을 파괴시켜 용해된 부분을 기점으로 부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

제품에 부식(녹)이 발생하는 이유

★ 사용전 (입주전)

- 바닥면에 전체적으로 부식(녹) 발생:
입수전 타공시 타공 가루를 완벽히 제거하지 않거나 작업중 발생한 각종 폐가루등이 표면에 침착되거나 흙집을 내어 해당 부분을 기점으로 녹이 발생
- 배수구 주변 및 타공 주위에 녹 발생: 타공작업시 발생한 철가루 및 각종 폐가루를 깨끗이 제거하지 않은 채 배수구를 결합할시 틈새에 잔여물이 남아 녹번짐 현상이 발생

★ 사용후 (입주후)

- 배수구 탈취제(세정제)를 사용: 강한 염소성분을 발생시키어 1차적으로 Overflow(물넘침구멍)의 뒷부분을 통해 녹을 발생, 2차적으로 장기간 사용시 배수구 주변 및 물걸름망에 부식(녹) 및 구멍 발생
- 화공약품 사용: 중성이 아닌 강산성 또는 강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 하거나 염산, 황산류의 강산류의 실험용도 및 사용후 신속한 제거가 없을시 부식과 동시에 변색이 발생

부식(녹)/얼룩에 대한 제거 방법

(※ 배수구 세정제의 유독성 물질과 접촉하므로 필히 장갑을 끼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.)

- 
비닐팩에 들어있는 세척용 가루를 개봉합니다.
- 
제품 전면 또는 부식된 부분에 가루를 뿌려줍니다.
- 
스펀지에 중성세제와 가루, 식초를 혼합하여 거품으로 닦아줍니다.
- 
녹의 진행도에 따라 원형으로 강약을 조절해가며 녹을 제거합니다.
- 
스펀지를 맑은물에 헹군 후 다시 중성세제를 묻혀 깨끗하게 세척합니다.
- 
마지막으로 배수구 거름망의 탈취제(세정제)를 제거합니다.